

美 관세폭탄 우려에 광주기아차 '비상등'

현대·기아차 지난해 국내 생산 37%·한국GM 25% 대미 수출 광주 쏘울·스포티지 수출비중 높아 비상... "정부 적극 대응을"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 부과 조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자동차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이 많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 2·3·4차 중소협력업체의 물량 감소 및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 등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19·20일 공청회를 열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의견을 조사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3일 '무역확장

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를 공식 착수한 데 따른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 행보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을 찾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전략적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전량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를 미국에 수출해 오고 있는 만큼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

배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만 전체 생산량(49만22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쏘울은 10만9625대, 스포티지는 7만4334대에 달한다. 대미 수출 비중도 타 지역 공장에 비해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광주공장 뿐 아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만 59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내 제작 후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전체 국내 생산 물량의 37.3%에 이른다. 르노삼성차는 더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26만4037대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46.7%인 12만3202대에 달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GM도 25.2%에 이르는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분석이다.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10%, 광주 총 생산액의 32%, 총 수출액의 40%에 달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관세 폭탄' 현실화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뿐 아니라 지역 고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경제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추진되면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경제 현실을 감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7.83 (-26.08)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1)
↓ 코스닥	826.22 (-13.95)	↑ 환율 (USD)	1112.80 (+7.70)



광주공인회계사회장에 조정현씨 선출

조정현 공인회계사가 제13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20일 이날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조정현(정안회계법인) 회계사를 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선임 회장은 "공인회계사회는 자본시장의 감시자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세무 및 경제전문가로서 세무대리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해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특히 "250여명의 광주지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청년·장년회원의 폭 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 회원 모두가 화합·소통하는 등 지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회계와 세법 등 교육을 강화해 회원과 직원의 최고의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성과 지자체, 법원 등 유관기관과 유대를 공고히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광주통신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2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광주시체육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관세청과 마약 없는 세상 만들어요"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1일 제32회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관세청과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마약류 밀수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단순한 호기심에 국제 우편물 등으로 대마제품(대마초, 오일), 양귀비종자 쿠키 등을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여행자들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무안국제공항 입·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탐지견의 마약적발 시범을 선보이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지속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유발시키고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1인 가구 1년새 18만 세대 증가

전체 가구의 28%... 광주 지난해 30.6%·전남 32%

경기 침체로 삶이 팍팍해지면서 광주·전남에도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가구 비율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000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000가구(3.3%) 늘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16년 29.9%이던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30.6%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전남도 31.1%(2016년)이던 1인가구 비중이 지난해 31.6%로 높아졌다.

1인 가구 취업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인 50~64세가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39세(23.7%), 40~49세(21.0%), 15~29세(18.8%), 65세 이상(10.1%)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 청년층 1인 가구는 지난해 주로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6년 증가율(4.1%)의 두 배를 넘어섰다.

15~29세 1인 가구가 전체 취업자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18.8%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중·상위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88만1천 가구로 전년(86만2천 가구)보다 1만9천 가구 늘었다.

맞벌이가구도 늘고 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중이 55.3%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도 45.5%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2016년(43.7%)에 비해 1.8%포인트 증가,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자영업자 살아남기 힘드네

연평균 영업익 전국 최하위권... 광주 폐업률 최고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개인사업체)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타 지역보다 낮고 폐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 자영업 현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에 따르면 광주 자영업자는 지난 2016년 기준 9만2000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9% 증가했다. 전남은 11만6000개로 연평균 2.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79.5%, 전남이 77.5%로

광주의 경우 49.0%가 소·소매업, 음식·숙박업이고 제조업 비중은 6.5% 수준에 불과했다. 전남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57.4%이고 제조업은 7.1%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전남은 2400만원으로도 단위에서는 강원 다음으로 낮았다. 폐업률도 광주는 15.7%로 광역시 평균인 14.4%보다 높았고 전남은 13.0%로 평균 13.8%보다 낮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은행 KJ카드 '썸머 이벤트'

8월 19일까지 워터파크 40% 할인·경품 혜택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주은행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썸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썸머 이벤트'는 ▲경품 이벤트 ▲워터파크 40% 할인 이벤트 ▲뮤지카 할부 혜택 ▲여행 이벤트 ▲서울·부산 투어 이벤트 총 5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경품 : 기간 내 홈페이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개인신용카드(체크포함)로 총 합산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는 터마 LED 마스크, 2등 8명에게는 공기청정기, 3등 50명에게는 GS칼텍스 모바일 5만원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워터파크 40% 할인 : 나주 중흥 워터파크, 화순 금호아쿠아나,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입장료를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시공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